

지역균형발전 탄탄대로 기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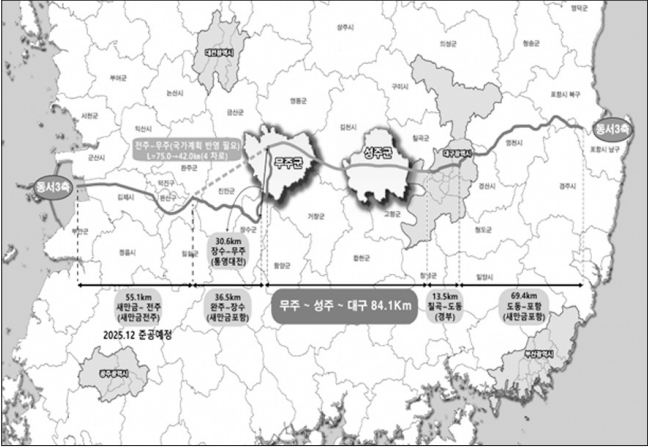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무주군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접락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넓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건설사업 추진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무주와 성주, 대구를 잇는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 새만금~포항 동서 3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해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적합성·필요성 등을 충족했다. 조사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 진행 후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은 전북 무주군에서 경북 성주군을 거쳐 대구광역시로 이어지는 왕복 4차로로 총연장 84.1km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지방도)가 만나는 나들목 7곳,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 3곳을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6조 4천억 원 규모다.

특히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경부축의 교통 분산과 교통 취약지역인 무주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및 성주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경기장 간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무주 무릉~김천 대역(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및 무주 실천 삼곡~두림(국도 37호) 2차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최선

대책회의 갖고 대응체계 마련

진안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안전환경국장, 부시장, 읍·면장, 진안경찰서 및 진안소방서 담당 팀장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겨울철 기상 전망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부서별, 기관별 대책 및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 한파 쉼터 운영 등 겨울철 이상 기후와 대설로 인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생태문화행사 8일 개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과 예술, 사람을 잇는 생태문화행사 ‘자연의 숨결, 나의 물결이 되다’ 생태인문예술 콘서트를 오는 8일 덕유대야영장과 탐방안내소, 구천동 어사길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의 숨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숲에서 문장을 즐기고, 별 아래 서사를 풀다”라는 부제 아래, 덕유산의 숲과 별빛을 무대로 인문학적 성찰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독립서점 ‘물결서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청년작가들에게 창작과 소통의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사 기간 동안 덕유산 탐방안내소 1층에서는 도서 전시회 ‘숲의 서재, 길 위의 사유’가 열린다. 자연과 삶을 주제로 한 시와 에세이, 소설 등 25권 내외의 도서가 전시되며, 또한 11월 8일에는 지역 청년작가와 함께하는 생태 트레킹 프로그램 ‘덕유, 마음의 문장을 풀다’가 운영된다.

같은 날 밤, 덕유대야영장 7영지에서 별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인문 예술 콘서트 ‘별 해는 밤의 낭독회’가 열린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만나 지원 요청

무주군이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황인홍 군수와 환경, 관광 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과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 2025~2027)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2단계) 종료 일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모는 매립 용량 28,280㎡, 조성 면적 4,832㎡(매립 면적 3,625㎡)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43억원(국비113억 원, 군비 30억 원)으로 무주군은 이날 2026년도 필요 국비 5억원을 요청했다.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2026~2030)은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생태교육 및 체험, 체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무주군이



이날 요청한 국비는 총사업비 187억원(전액 국비) 중 2026년도 사업비 1.2억 원이다.

황인홍 군수는 “두 사업 모두 무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와 생태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업 추진을 통해 무주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치유관광 거점으로서 ‘자연특별시 무주’에 새로운 활력을 충전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관계기관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주요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김성수 농협 군지부장,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박점용 장계농협 조합장,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관내주 장수신협 이사장, 송성수 장계무궁화신협 이사장, 주귀봉 장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신복철 장계새마을금고 이사장, 서근원 산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관내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기관별 예방 우수사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유·가적 협력을 강화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한국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진행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일원에서 한국여성농업인 장수군연합회(회장 안옥순) 주관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옥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은 △FTA 현황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이해 △농업 관련 법률적 검토 기법 △경영계획 수립 방법 및 사업평



가 기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청소년 금연·건강 생활실천 공모 우수작 시상

무주군은 3일 무주군민의집 대강당에서 ‘2025년 청소년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슷품 영상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중학교 이지혜 등 2명의 학생이 출품한 ‘포리에 포리를 무는 담배 이야기’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설천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들이 출품한 ‘담배? 어물리지 않아요’가 수상했다.

이외 우수상은 무주중학교 최사라 등 3명의 학생이 출품한 ‘담배 도시’와 최지우 등 4명의 학생이 참여한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의 고통이 되기 전에’가 각각 차지했다.

‘청소년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슷품 영상 공모전’은 무주군이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총 14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무주군은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작품 완성도, 교육 및 홍보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진안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 및 변호관 영치를 실시했다.

경찰과 연계한 이번 변호관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청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변호관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